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마음이 민첩한 사람

성경: 다니엘 6장 1-10절

Tag:

1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백이십 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의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5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6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 하옵소서

7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삼십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8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9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

## 라 (단6:1-10)

### 3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마음이 민첩하다-성경 원어상으로는 그 ‘영이 뛰어나다;excellent spirit’

-아주 영적인 사람이다.

영이 뛰어난 사람의 특징.

-말에 실수가 없다.

-꼭 필요한 말, 정확한 말(진정성), 반박할 수 없는 말. -싸우려는 자에게는 이기는 말.

-말의 결과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말. 담대한 믿음의 말.

(헤로도투스의 역사에도 등장하는 다리오왕)

-다리오라는 말은 그 나라 말로 ‘두 왕;두 나라의 왕?’이라는 뜻이다. 성경에는 그냥 다리오라고 소개되는 왕이 많다.

-본명은 ‘아스티아게스’이다.

\*다니엘(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유다 귀족의 자녀

-느브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하여 왕족과 귀족을 잡아가고, 그 자녀들을 왕궁에서 신하로 길러냄

-느브갓네살이 교만하여 광인이 되어 그 아들 벨사살이 섭정하게 됨

-어느날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고 시종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잔치할 때 그 아비 느브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 온 제기들로 술을 마시자 진노하신 하나님이 벽에 글을 쓰심

-다니엘 밖에 해석할 자가 없어 다니엘을 모셔 오는데 그 해석이

-메네;이미 왕의 나라가 끝났다.

-데겔;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베레스(우-파르신-우바르신);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나뉘인 일부 영토는 나중에 정신 차린 느브갓네살이 다시 다스리게 됨)

-그날 저녁 벨사살은 암살 당하고 메대의 다리오:왕 ‘아스티아게스’에게 나라의 일부가 넘어간다.

-왜냐면 느브갓네살이 메대와 정략결혼을 했었는데, 메대 왕 아스티아게스의 누나 아미티스 공주와 결혼하여 벨사살을 낳은 것이다.

-아미티스 왕비는 동생 메대왕 아스티아게스에게 나라의 일부를 넘겨주었다.

(이 아스티아게스는 에스더를 왕후로 맞이하게 된 왕이라는 설도 있다. 왜냐면 전통적으로는 후대의 크사르크사스 왕의 왕후로 알려졌었는데, 연대표가 틀리다는 이유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겼다.)

-다리오 ‘아스티아게스’는 다니엘을 메대로 데려가서 아마도 바벨론 지역의 총독 겸, 세명의 총독 중 우두머리로 삼는다. (메대와 페르시아)

-그러나 메대와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듣보잡 다니엘이다.

-그들이 사찰하며 다니엘을 탈탈 털었으나 먼지 하나 나오지 아니하였다.

(얼마전 새로운 검찰총장 이원석(전남 보성 출신, 당시 제주 지검장); 청문회 때 후보자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보고서가 너무 부실하다고 항의함. 자녀들에 대한 개인정보는 막아놓음. 그래서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아무런 허점이 보이지 않아서 이것은 잘못된 보고서다. 그러나 총장 자신은 형편이 넉넉지 않아 아이들에게 아무런 스펙도 쌓아주지 못했을 뿐이다.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 외국으로 스펙 쌓으려고 출국한 적이 없다. 외국환거래를 한 적이 없다. 호텔 콘도 골프 회원권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

명하는가. 조수진의원은 모두가 조국같이 살지는 않는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의 흠을 잡기 위해서 계약을 꾸민다. 다니엘이 걸려들 수 밖에 없는 것. 기도하는 것을 문제 삼자.

-몰래 숨어 있다가 그가 기도하는 것을 촬영하자.

-단순한 다리오는 한달간 오직 다리오왕에게만 구하고 다른 신들에게는 구하지 못하게 하자. 버릇을 단단히 고치도록 하자는 법안에 어인을 찍는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법안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평상시와 같이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두고 누구든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왕은 자신이 실수한 것, 악한 신하들이 다니엘을 모함한 사실을 알았다. 왕은 해가 지기까지 묘수를 이리 저리 생각해 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금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 밖에 없었다.

-다니엘은 순순히 던져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

-새벽까지 마음을 졸이고 금식하고 잠을 자지 못하던 왕이 사자굴로 달려왔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다.

-왕은 다니엘의 정적들과 그 식구들을 사자밥으로 던져 주었다.

-그리고 왕은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하였다. 다니엘을 높이며 그의 통치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다니엘은 그 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메대를 점령하여 다스리게 되었어도 그의 신하가 되었다.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은 남을 비판하고 교만하고 껌냥이 되지 않으면서도 권력을 탐하는 자들로 북적거린다.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그런 자들이 누구인지,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만약 신앙 때문에 고난 당하거나 핍박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거든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급이 큼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5:11-12)

오늘날 우리나라를 해치려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는데, 오늘날에도 반국가세력이 되어 반미 반일 친중 친북을 외치며, 자유를 뺏 민주주의를 외치며,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고 하는 자들.

대통령은 국민들의 신임을 받아 5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자인데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기대에 어긋나면 국민의 뜻을 거스린다고 주장한다. 어불성설. 국민 모두가 반미 반일은 아니다.

세월호사태, 광우병사태, 효순 미선사태, 성주 사드반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등을 주동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한국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면서 온갖 악한 말들을 쏟아내고 사회를 분열시키고, 기존 가치관을 훼손하고, 교과서를 자기들 맘대로 만들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이들이 곧 반

국가단체이다. 이들이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이들의 세력이 쪼그라들고 그들의 계획이 무산되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보수단체는 3만명 신고, 반국가단체는 10만명 신고, 그러나 이렇게만 보도되고 정작 몇만명이 모였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음. 그런데 각종 보도에서 반국가단체 그림은 사진에 얼굴이 다 나오고, 보수단체 사진에는 얼굴이 나오지 못함... 카메라 장난질 중.

하나님 우리는 마음이 민첩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하소서.

저들의 꿈수가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 거짓말의 의도와 실체가 밝혀지게 하소서. 자유를 지우고 민주만 내세우는 의도를 국민들이 깨닫게 하소서.

저들이 말하는 공정은 자기 이념대로의 공정임을 이제는 국민들도 깨닫게 하소서.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니엘처럼 영적으로 깨어나서 나라의 정통성을 흔드는 자들의 속임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소서.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일대일 양육      성경: 요한복음 1장 44-51절

Tag: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벧새다 사람이라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1:44-51)

일대일 양육이란 무엇인가? (또는 이대 일-일대일이 부담되는 사람 또는 부부, 상대방이 일인 것이 중요함.)

일대일 양육이란 단순한 성경공부가 아니라, 양육자와 동반자가 일

대일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매개로 서로의 삶을 나누며 성도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입니다.

이렇게 하여 동반자가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담대하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었는데를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의 관계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양육자와 동반자가 함께 기쁨, 슬픔, 아픔, 고통, 영광...

이 모든 것을 함께 공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하는 것 입니다.

또한 한사람 한사람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생명이며 사랑이신 구원에 주 소중한 예수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 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는 주님을 소개하여 영접하게 하는 것 입니다.

왜 일대일 양육을 하는가?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전도방법.

\*일대일로 하면 집중과 전달이 잘 됩니다.

\*일대일로 하면 인격간의 만남이 가능하고 양육의 열매가 확실합니다.

설교나 강의처럼 일대 다수가 만나게 될 경우, 지적으로는 유익한 점이 많으나 인격적인 만남이 일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일대일로 만나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되고 마음과 마음의 교통이 이루어 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러한 인격간의 참된 만남 속에서 사람들은 가장 확실하게 영향을 받고 변화됩니다.

\*일대일에서는 공동체에서 숨겨질 수 있는 개인의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일대일 양육의 어려운 점이기도 하지만, 또한 강점이기도 합니다.

\*일대일 양육은 양육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합니다.

양육자로 섬기면 양의 위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목자의 심정과 자세를 갖게 됩니다. 받아 먹는 양의 위치에만 있으면 양의 심정과 자세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되어 동반자를 섬기는 위치에 서게 되면, 그는 목자의 심정을 알게 되고 자기도 그 심정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는 일입니다. 일대일 양육은 이처럼 평신도 사역자를 길러내는 중요한 양육방법입니다.

\*교회에 대한 부정적 요소가 제거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개인차가 크다. 실망하지 말고 꾸준히 중보기도 하면서 긍정적으로 접근할 것.

분명하게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 원한다고 하면서 만남을 계획하라.

-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 간증하라.
- 목사님 한번 만나보라. (사모님 한번 만나보라)
- 예배 시간에 한번 와라.
- 논쟁하지 말라. 교리공부 하지 말라. 기독교 율법을 가르치지 말라.
- 다만, 십계명을 지키면 좋다고 하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라.
- 성령님을 의지하라. 도와 달라고 기도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라.
- 복음의 핵심만 강조하고 자신의 해석은 신중하라.
- 헌신하는 만큼 상급**도 있지만, 우선은 이 세상에서 신령한 복과 보호를 받고 죽어서 천국 가야 하는 것만 강조할 것.

